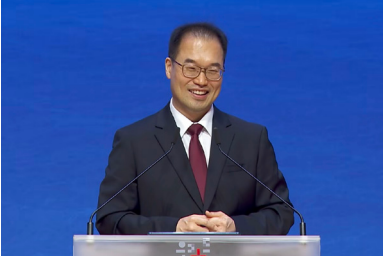


마음을 다한 사랑

신명기 10장 12-16절 • 이성훈 목사



여러분,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는 무서운 요구를 가장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결혼식장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서운 요구에 망설임 없이 행복한 얼굴로 “네!”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뜻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요구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한 사랑에 대해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스라엘아’ 앞에 ‘이제’가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

들고 언약의 돌판을 깨뜨린 백성을 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시고 일으키신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본문의 ‘경외하고,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지키라’는 명령은 각각의 숙제가 아니라 모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온 마음이며, 그 이유는 “네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뒤집히는 것입니다. 돈과 자녀, 안전과 성공처럼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의지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온 마음을 걸면 그것이 흔들릴 때 우리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뒤틀린 사랑의 질서를 바로 세워서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거룩과 행복은 반대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행복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면 우상이 되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룩의 길을 걸으면 그것이 참된 행복이 됩니다. 행복은 내 형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 중심이 평안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곧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기에 우리에게서 무엇을 받아내야 채워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는 단순히 기분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고 붙어 있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수효가 많아서도,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

성·경·본·문

¹²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¹³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¹⁴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¹⁵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라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¹⁶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끈게 하지 말라

판교채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19 Tel: 031-719-3882 Fax: 031-716-3881

휘문채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541 휘문고등학교내 Tel: 02-558-3882 Fax: 02-557-3881

대구채플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 14길 7 Tel: 053-631-3882 Fax: 053-631-3881

광주채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72 Tel: 062-716-3882 Fax: 062-716-3881

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기 시작하면 그 결론은 교만과 절망입니다. 내가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부족하다고 그 사랑에서 탈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조상의 옛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마음을 다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두셨습니다.

셋째,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택하셨기에 이제 마음까지 하나님께 속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시입니다. 몸에 행하던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직분이나 신앙 경력이 마음의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맞서는 우리의 완악함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반면 ‘목이 곧다’는 것은 고개를 못 숙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숙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과 내 계산이 부

딛힐 때, 배우자나 공동체의 말이 듣기 싫고, 말씀보다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목이 곧아집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굳은 마음을 잘라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6절에서 친히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말씀의 수술대에 누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부딪침을 통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드러내시고 치료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는 내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다시 사람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공동체 고백입니다.

한 목자님은 자신의 의가 너무 강해서 함께 사는 아내가 힘들었겠다는 것을 깨닫고,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적용까지 했는데도 오히려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돌이켜 보니 자신이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에너지 삼아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겨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이 부부를 나누던 중 “당신은 자신을 너무 사랑해”라는 말을 들었는데, 머리로는

맞는 말임을 알면서도 또 화가 났습니다. 마침 다음 날 주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분명히 깨닫고 회개도 했는데 옛사람의 습관이 질기게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상급이 되시고 제 기쁨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큐티하며 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초원님은 세상 열심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또 다른 우상으로 채우지 말고 말씀으로 채우라고 권면했습니다.

회개했다고 옛사람의 습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씩 조금씩 변해갈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과 기쁨이 되어 주시기를 구하며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가 행복을 말했던 것들이 무너져도 함께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마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언약의 성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마침내 우리의 마음도 다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드리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교회 홈페이지와 연결됩니다.



금주의 기도제목

1. 우리 교회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영적 공동체가 되도록
2. 각자 처한 환경에서 마음의 할례를 함으로 말씀에 맞서는 완악함을 잘라내며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 아닌 거룩에 두도록
3. 담임목사님 모든 사역을 감당할 체력과 권능을 주시고 국내외 전하신 구속사복음과 말씀묵상운동이 뿌리내려 열매 맺도록
4. 지역감정과 정치이념의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에서 벗어나 입법 행정 사법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생명보호법이 제정되도록
5. 신학생 세미나와 하반기 교회 모든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죄를 보고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주일예배 2026.8.30

1부/ 오전 6시 50분
2부/ 오전 8시 50분
3부/ 오전 11시 30분
4부/ 오후 2시

- 이 표 (*) 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신앙고백

찬 양
기 도

사도신경

1부/ 차태희(판) 한진혁(휘) 2부/ 천경욱(판) 허광정(휘)
3부/ 이정후(판) 하병이(휘) 4부/ 채병윤(판) 최대훈C(휘)

다 같이

다 같이
기 도 자

교회소식

다 같이

세례간증

2부: 홍가혜 3부: 천세창 4부: 하관욱

세례식

인도자

간증

김윤지A, 최예본

성경봉독

열왕기하 23장 31~35절

사회자

설교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김양재 담임목사

통성기도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다 같이

봉헌기도

인도자

적용(4부)

청년국

* 새가족 환영

다 같이

* 축도

인도자

수요 오전 큐티예배

9월 2일(수) 오전 10시

인도: 장용석 목사, 심주용 초원지기

본문: 사무엘하 3장 35절 - 4장 4절 / 기도: 김송A 집사

울림 웬즈데이 워십

9월 2일(수) 오후 7시 30분

인도: 최대규 목사

본문: 신명기 15장 1절 - 11절

새벽기도회 8/31-9/6 오전 5:30, 판교 채플 4층 연수홀(주일은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인도자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태준 목사	정하강 목사	이정미C 초원지기	김기현 목사	이성훈F 목사	정민영 초원지기	정찬형 목사

▶ 2026년 9월 예배 및 봉사위원 안내

구분	1부 기도/봉헌		2부 기도/봉헌		3부 기도/봉헌		4부 기도/봉헌		수요		행사				
30일	판	차태희 / 김진혁A	천경욱 / 강기완	이정후 / 김동원F	채병윤 / 이승찬B	김송A(9/2)			김송A(9/2)		휘문 2부 장년세례식, 휘문 3부 유아세례식				
	휘	한진혁 / 김재우D	허광정 / 배현대	하병이 / 정순철	최대훈C / 이용호E						휘문 4부 청년세례식				
9/6일	판	최건A / 강영균	최덕재 / 김선용	이준혁A / 김현철H	김은실G / 박강숙	김수미A(9/9)			김수미A(9/9)		-				
	휘	홍태진 / 이홍명A	허재환 / 이용호B	한진기 / 강경오	이제명 / 주기쁨										
13일	판	최지훈A / 김현기	지주환 / 김설봉	이찬희A / 김형태E	권순찬 / 김창주	김순주(9/16)			김순주(9/16)		-				
	휘	강태홍 / 구희근B	권원태 / 김옥경	허성욱A / 김진상	박도건 / 김민교A										
20일	판	최진희B / 김영철E	최현희B / 김성하C	이천희 / 남상원	원대안 / 유서연B	김신애B(9/23)			김신애B(9/23)		판교 2부 장년세례식				
	휘	강기만 / 황지형	권민성A / 박세웅	홍석원A / 김충교	윤준상A / 이준영J						판교 3부 유아세례식				
구 분	토요청소(마을 청소날짜)		주일주치원 (초원)		토요세팅 및 주일오후 분리수거		화장실 청소 및 분리수거		주일주치원		청소지원	청년부 지원	구 분	봉사마을	
30일	판 교	154주광식155이승근B	(9/5일)	128	후 만	53 윤근원	17 서경A	41 박병준A	118 유재권	어라운드	청 년 부	리 본	판 교	판	3층 이수현 4층 김주영 5층 이은이 주차 이홍택
		166김서영E167장인숙		정희학		56 이지훈A	18 김경남A							최슬기 오은경	
156문치영157장진우A		(12일)	129	57 권영식		19 원지영	40 김재홍B	121 이윤배	판	3층 송경아 4층 권슬기 5층 서희주 주차 정지호					
168안옥란169윤영돈			심경보	58 김태훈E		20 김미지				이준호 박숙경					
158정해성B159김원석B		(19일)	130	59 차주전		21 김영미A	39 강재현	122 강필구	위드	판				3층 황예영 4층 박은별 5층 송경아 주차 김기현	
170박성원A171장봉덕			박종혁A	60 주봉길		22 이순영B				김지연 손유진					
20일	-	(26일)	131	61 한진기	23 정해순A	38 송영섭	123 김영환	밸런스	판	3층 권슬기 4층 서희주 5층 황예영 주차 김승택					
			안효빈	62 이성주	24 이혜원D				문현성 장지혜	휘					

우리들 소식

● 공통

1. 예배 안내

- 오늘 예배시간에 장년 세례식(취문 2부), 유아 세례식(취문 3부), 청년 세례식(취문 4부)이 있습니다.

2. 제23회 THINK 목회세미나 안내

- 제23회 THINK 목회세미나가 10월 19일(월)~22일(목)에 열립니다.
- QTM 홈페이지(<http://qtm.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습니다.
- 신청 기간은 9월 31일까지입니다.
- 대상: 담임목사와 동반하는 사모, 부교역자, 평신도 지도자
- 목회사 THINK양육: 2026년 11월 2일 ~ 11월 30일 (매주 월요일 5주간)
- *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월요큐티모임 안내

- 월요큐티모임이 9월 7일(월)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 구속사의 말씀으로 한절 한절 깊이 있게 묵상하며 기도하는 큐티모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판교채플 본당

4. 큐티인 6종 및 영문 QTin 6종(9월 호)

- 2026년부터 큐티인 시리즈가 격월간에서 월간으로 발행됩니다.
- 큐티인, 청년 큐티인, 청소년 큐티인, 어린이 큐티인, 셋별 큐티인, 새싹 큐티인, QTin, QTin Young, QTin Teens, QTin Kids, QTin Stars, QTin Sprouts 9월 호가 나왔습니다. 많이 구입하셔서 전도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문 및 영문 큐티인, 청년 큐티인, 청소년 큐티인은 앱으로도 제공 됩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 문의: 031-707-8781
- '올림가게'에서도 큐티인 시리즈와 담임목사님 저서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5. 제2회 신학생 THINK 목회세미나

- 제2회 신학생 THINK 목회세미나가 8월 31일(월)에 우리들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 신학대학원 M.Div 과정에 있는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무장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기독교학교 생물배움공동체(경기도 용인 소재) 2027학년도 학생모집

- (은혜샘물유치원, 은혜샘물초등학교, 샘물중고등학교)
- 1) 대상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1학년)
- 2) 입학설명회/접수마감 : 9월 5일(토) / 초중고 10월 2일, 유치원 10월 19일
- 3) 문의 : 031-714-7091(1번), www.smca.or.kr

● 판교 소식

1. 판교채플 신형 주차증 교체 안내

- 대상: 2026년 기존 주차증을 소지한 모든 성도님들
- 장소: 판교채플 주차관리실(지하2층)
- 일시: 9월 6일 ~ 10월 25일 (오전 8:30~11:30 예배시간 전후)
- 9월은 1,2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먼저 교체해주시고
- 10월은 3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 ◇ 수령방법 및 안내:
- 1) 기존 2026년 주차증을 반납하시고, 새로운 주차증으로 교환하세요.
- 주의: 기존 주차증을 꼭 가져오셔야만 교환 가능합니다.
- 미취학 대상의 주차증 교환은 해당 부서에서 진행합니다.
- 2) 주차규약을 통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예배 시간대를 신청해주시고 주차증 교환을 해주십시오.
- 3) 신규 주차증을 신청하시는 분도 주차규약을 통해 신청해주시십시오.
- 4) 주차증이 있어도 대상자(미취학, 장애인, SG)가 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만 입차 가능합니다.
- 5) 예배를 드린 후 다음 예배 참석자들을 위하여 즉시 출차를 부탁드립니다.

2. 주차금지 안내

- 교회 근처 화원과 더샵 방향의 세븐일레븐 편의점에는 주차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2주차장 주차 안내

- 유스페이스 1동 주차장, 대왕판교로 660(삼평동 670)
- 주일 하루 1회에 한해서 10시간 무료(주말) 재입차 시 요금 발생
- 지하 3층에 주차, 만차 시 지하 4층을 이용해 주세요.
- 유스페이스 1동 기업은행 앞에서 셔틀버스 탑승과 하차

- 교회 앞 백현 고가 아래에서 셔틀버스 하차와 탑승
- 셔틀버스가 예배 전후에는 7분 간격으로, 예배 중에는 15분 간격으로, 2시 이후에는 3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4. 유스페이스 주차시 이용 안내

- 유스페이스 화장실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화장실 변기 및 세면대에 이물질을 버리는 경우 시설 파손 및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스페이스 층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사오니, 사용에 각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5. 봉사자 및 교사 전용 주차장 안내

- KIS국제학교는 교육 부서 교사 전용주차장입니다.
- 국제고와 석유관리원에 주차하신 분들은 늦어도 6시 이전에 출차해 주세요. (6시 이후 출차 불가)
- 수요일에는 국제고와 석유관리원에 주차하실 수 없습니다.

6. 교회 지하 주차장 이용 안내

- 경차는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우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앞 유턴 후(안양 방면에서 오실 경우) 지하 주차장 입차는 불가능합니다.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일 예배 중에는 지하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 주일에 지하 주차장으로 입차하시려면 사전에 <2026 주차증> 또는 <임시 주차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QR코드 참고)



7. 미취학 아동 예배 안내

- 유모차를 동반한 미취학 아동은 영아부실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본당 출입이 꼭 필요한 경우는 본당 2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L층과 1층은 유모차 입장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판교채플 주차봉사자 모집

- 주일에 주차로 섬겨 주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 지원 자격: THINK양육교사 수료 / 지원 문의: 하성태 부장(010-5323-8880)

● 회문 소식

1.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주차 금지

- 회문고 인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많습니다.
-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는 절대 주차를 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에는 KT&G와 오토웨이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KT&G, 엠디엠타워 주차 안내

- KT&G, 엠디엠타워 주차장은 예배를 한 번 이상 드릴 경우, 교사 및 봉사료 인한 장기 주차장입니다.
- KT&G 고정 등록 차량은 반드시 B4~B6층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 KT&G 미등록 차량 및 엠디엠타워 주차 성도님은 회문고 후문 주차 위원에게 차량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당일 주차가 가능하나, 입차 후 재입차(중간 출입)는 불가능합니다.
- 주차 문의: 신동희 총무(010-6654-2666)

3. 오토웨이 주차안내

- 오토웨이 주차장은 3시간 이내로만 이용 가능하며 예배를 한 번 드릴 경우에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토웨이 주차 후 차량 등록해 주세요. (회문고 후문/QR코드)
- ① 차량 끝 번호 4자리 입력 후 차량 조회 클릭
- ② 차량번호 확인 후, 3시간 할인 등록(녹색) 클릭
- * 등록 차량, 3시간 무료 주차
- * 오류 문의: 교회 사무실(02-558-3882)
- 오토웨이 주차 관련 유의 사항
- ① 지하 2층에는 절대 주차금지입니다.
- ② 입·출차 시 차단기 직전에서는 앞차와 거리두기 바랍니다. (차단기 작동 오류 빈번)
- ③ 오토웨이 화장실 이용 자제, 음료 용기 등 버리지 마세요.

4. 분리수거 봉사자 상시 모집

- 3부, 4부 예배 후 분리수거로 봉사하실 성도님을 상시 모집합니다.
- 문의: 문승태 팀장(010-7682-0881)

5. 회문 장소 사용 유의사항

- 컵라면 국물, 커피 등을 변기와 정수기에 버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 기물 번호 스티커 제거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 사용 후 뒷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여 학교 측의 항의가 오고 있습니다. 사용을 마치고 반드시 쓰레기를 치워주시길 바랍니다.

* 오늘 오신 모든 새가족과 방문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 마련된 환영 행사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달음식은 정문 옆에 설치된 배너(배달음식 받는 장소)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실에 맡기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6. 주차요원 모집

- 모집 인원
주일4부: 정문 2명, 후문 2명 총 4명
수요저녁: 정문 1명, 후문 1명 총 2명
- 문의: 주차 총무 신동익(010-6654-2666)

● 공통(Brand new & WITH)

1. 청년 먼데이 큐티 모임(합정 & 판교 & 휘문)

(먼데이 큐티 모임)



-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 대상: 청년 누구나
 - 신청: QR코드 참고
- (판교)
- 장소: 판교 채플 6층 가볼실
 - 문의: 김은성 목사(010-2232-5042)

(합정)

- 장소: 스페이스 DM(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12-14, B1)
- * 주차는 근처 공영주차장 이용하셔야 합니다.
- 지하철 이용 시: 합정역 6번 출구 5분 거리, 상수역 1번 출구 7분 거리 / 다이소 옆 전주 콩나물국밥 지하 1층
- 버스 이용 시: 7011, 7013A, 7013B(서울 화력발전소 입구 하차)
- 문의: 이흥규 목사(010-8597-3036)

(휘문)

- 장소: 휘문 채플 사랑부실(안양빌딩 B1)
- 문의: 김태현 목사(010-6202-0191)

2. 올림 웬즈데이 워십

- 청년들을 위한 찬양과 말씀이 있는 '올림 웬즈데이 워십'이 '휘문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 일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3. 청년국 공식 SNS를 통해 청년국 소식과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채널, 유튜브에 '우리들교회 청년국'을 검색해 주세요.

4. 결혼 예정인 청년들은 예식 2주 전까지 교회 사무실로 청첩장을 제출

- 해 주세요. (주보 및 홈페이지 광고용) 결혼 후 부부목장 및 여자목장 배정은 부서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Brand new

1. 2026 하반기 브랜뉴 청년국 THINK 양육 OT 안내

- 일장: 8월 30일(주일) 4부 예배 후
- 대상: 양육자 및 동반자
- 장소: 휘문(본관 회의실 2층), 판교(본당 중앙, 앞 자리)
- * 양육교사 OT는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2. 청년 '팝업 큐티'(금요 큐티모임)

- 일시: 9월 11일(금), 18일(금) 오후 7시 30분
- 대상: 브랜뉴 청년 누구나 30명
- 신청: 추후 공지
- 장소: 뱀카페 Nap.Studio,Cafe(경기 구리시 인창동 307-21)
- 문의: 최대규 목사(010-2788-6254)
- * 주차는 근처 공영주차장 이용해 주세요.
- * 지하철 이용 시: 구리역 7번 출구 도보 10분

3. 다시 가을 - 청년국 명랑아웃팅

- 선선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가을, 신교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을 위한 아웃팅이 진행됩니다.
- 일시: 10월 9일(금)~10월 10일(토), 1박 2일
- 장소: 춘천 모두숲 (춘천숲자연휴양림캠핑장)
- 대상: 양육 수료한 90~02년생 토래 브랜뉴 청년 (대구+광주+THINK허브교회)
- 모집 인원: 형제 30명, 자매 30명 (총 60명)



- 신청: 9월 27일까지 / QR 신청(선착순 x)

- 문의: 김태현 목사 (010-6202-0191).

4. 하반기 브랜뉴 스쿨 안내

- 알쓸신잡: 10월 17일(토)~11월 7일(토) 4주간
- * 스쿨 세부사항은 주보와 청년국 홈페이지 광고를 참조해 주세요.

5. 군 선교팀에서 위문편지를 보내드립니다

- 군 선교팀에서 군 복무 중인 지체(우리들교회 등록 교인)들을 위하여 큐티인과 주보를 매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메일(mil@woori.cc)로 신청자의 성함과 연락처, 받는 분의 성함과 연락처, 소속 목장, 주소, 세대 날짜 또는 위문편지 발송 기간을 보내주세요.

● WITH

- * WITH 공지 및 신청 안내: 카카오톡 오픈채팅, 밴드,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주세요.

1. WITH 먼데이 QT 모임

- 일시: 9월 7일(월)부터 매주 오후 7시 30분
- 장소: 큐티엠 핑크홀
- 대상: 워드 공동체
- 금요일 오후 1시 신청 시작

2. WITH THINK 양육 / 양육교사 오리엔테이션

- 일시: 9월 6일(주일) 4부 예배 후 각 채플
- 대상: 양육자 및 동반자
- 장소: 휘문(본당 2층 우측 자리), 판교(본당 앞 중앙 자리)

3. WITH 티티 통합 피드백 MT

- 일장: 9월 4일(금)~5일(토)
- 대상: 2026 WITH 국내 티티 참가자
- 장소: 엔케렘 수양관(안산 대부도)

<교우 동정>

1. 장례

- 직장255-1 안명숙B(김우현D) 집사 모친상/직장292-2 정인주(오춘석) 집사 모친상/직장298-4 이희선D집사 남편장례/부부42-2 김현희H(정화선C) 집사 부친상

2. 결혼

- 김명성 군(EZER 공동체 홍성민B 목장)과 김은우C 양(NURSING 공동체 천효정A 목장/ 부부92-4 김종재 · 서지영F 집사 장녀)의 결혼예배가 9월 5일(토) 오전 11시, 우리들교회 판교채플 8층 탄설홀에서 있습니다.
- 이윤제B 군(BALANCE 공동체 신윤재 목장/부부17-2 이동호A · 연미향 집사 장남)과 이상원A 양(BALANCE 공동체 김예은N 목장/ 부부85-2 이순철A · 최정애A 집사 삼녀)의 결혼예배가 9월 5일(토) 오후 2시, 우리들교회 판교채플 8층 탄설홀에서 있습니다.
- 황인재A 군(AROUND 공동체 오현준 목장/부부131-1 황광연 · 배은미A 집사 장남)과 이예림B 양(휘문 REBORN 공동체 오경민A 목장/부부38-3 이관영B · 김혜숙J 집사 장녀)의 결혼예배가 9월 5일(토) 오후 5시, 우리들교회 판교채플 8층 탄설홀에서 있습니다.
- 이주현B 군(AROUND 공동체 김영광A 목장)과 김빛나라 양(AROUND 공동체 서현선 목장/부부35-1 김방영 · 김영신A 집사 장녀)의 결혼예배가 9월 5일(토) 오후 12시 10분, 보타닉파크웨딩, 카라홀에서 있습니다.
- 김재형C 군(REBORN 공동체 류영한 목장/부부82-3 김대선B · 홍현순A 집사 아들)의 결혼예배가 9월 5일(토) 오후 4시 20분, 공군호텔 3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습니다.

설교 통역 ▶영어(판교 및 휘문 3,4부 주일 예배)



주일 3부 예배 - 판교채플 1층 통번역실 / 휘문채플 2층 방송실에서 수신기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주일 4부 예배 - 유튜브채널(우리들교회선교국 @wooridlemissionary)에서 영어 통역이 방송됩니다. * 주일 1-2부 예배는 통역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주차장소안내

주차 장소에 대한 정보는
오른쪽 QR코드를
참고하세요.



THINK 기초양육반

▶ 세례 받으실 분들은 꼭 참석하세요.
 <THINK 기초양육> 책을 지참해주세요.
 신청은 양육 장소로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판교: 7나눔실(5층) / 휘문: 본관 3층 미술창작실

판교/2과 입학자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휘문/6과 왜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지난 주일 통계

출석

주일예배

구분	판교	휘문	대구	광주	유평
1부	476	302	12	9	1,715
2부	1,744	1,816	93	58	2,221
3부	1,720	1,685	124	157	1,385
4부	856	844	54	61	928
소계	4,796	4,647	283	285	6,249

주일학교

구분	판교	휘문	대구	광주	유평
미취학부	484	269	21	20	11
취학부	673	481	32	27	41
청소년부	558	401	15	27	31
사랑부	59	64			
소계	1,774	1,215	68	74	83

합계	13,142	6,332
총계	19,474	

수요예배

구분	판교	휘문	대구	광주	유평브
오전	1,341		8	18	1,815
오후	173	494	137	24	1,014
합계					2,829
총계					5,024

헌금

감사헌금	16,966,000
건축헌금	1,241,000
목장헌금	28,938,210
목적헌금	1,000,000
선교헌금	13,286,476
심일조헌금	342,135,550
주일헌금	21,990,698
영아부	33,000
유아1부	30,100
유아2부	6,000
유치부	32,000
유아유치부	56,000
유년1부	28,000
유년2부	43,500
초등1부	19,500
초등2부	35,000
소년1부	52,000
소년2부	30,000
사랑부	147,100
중등1부	52,000
중등2부	120,000
고등부	180,000

합계 426,422,134 + 외화

● 건축헌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076901-04-009971
 우리은행 1006-901-234-320
 ● 일반헌금 입금계좌:
 하나은행 213-910001-89104
 신한은행 100-036-092043

▶ 입금시 송금장명예
 이름+휴대전화 뒤 4자리를 기재해 주세요.

† 우리들교회는...



우리들교회는 2003년 6월 김양재 담임목사에 의해 창립되었다. 김양재 목사는 이복이 고향인 부모님 밑에서 4대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반주자로 오랫동안 섬겼지만 교양과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장로 집안의 의사아들과 결혼했다. 그러나 유

교적 전통이 강한 시택에서 고된 시집살이 5년 만에 가출해 기도원에 갔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

말씀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이 되며, 환난이 주제가 되고 보니, 고통스러웠던 가정생활이 주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다가 37세 되던 해에, 산부인과 의사였던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극적으로 회개한 일을 계기로 영혼 구원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다. 이후 고난이 축복임을 역설하며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조명하는 큐티 선교에 힘써 왔다. 20년 가까이 평신도 큐티 사역자로 헌신해 오다가 2003년부터 우리들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우리들교회는 휘문, 판교, 대구, 광주채플 네 곳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큐티 목상을 통해 각자 자기 죄를 보모로서 무너진 가정이 되살아나는 기적을 매일 매일 체험하고 있는 말씀 목장 공동체다.

새가족 등록

판교 새가족

번호	이름	주소	인도자	목장/목자
536	권규리	용인	김선미	여자130-4 이남희C
537	김은숙C	화성	이진희J	여자165-1 조경아B
538	이지연AC	성남	이희옥	여자107-1 김수연J
539	임은경C	충남 천안	이혜진P	여자146-3 김미란
540	김영진K	용인	장운선	청년국
541	김은서H	성남		청년국
542	배예지B	충북 음성	신성진	청년국
543	이정은AF	과천	김요한	청년국

판교 주일학교 새가족

번호	이름	주소	소속기관
25	조오빈	유년2부	
26	조오승	유년2부	

휘문 새가족

번호	이름	주소	인도자	목장/목자
494	윤종현C	구리	엄라연	부부9-2 이강욱
495	조미경G	하남	한태실	여자60-3 이영주G
496	강다은A	송파	김영희	청년국
497	김교민B	서초	김송	청년국
498	김은조	동대문	장현이	청년국
499	김진솔D	인천		청년국
500	신해령	강남	이경현	청년국
501	안윤아	강남	최훈A	청년국
502	이주혜F	광진	박진희B	청년국
503	장세라	고양		청년국
504	전수아		임승훈	청년국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목사님 방송설교

1. 국동방송: '날마다 살아가는 큐티'

- 본방송: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45분
- 라디오 주파수: 서울 및 수도권 FM106.9 / 나머지 지역은 www.febe.net에서 확인가능
- 다시듣기: 우리들교회 홈페이지 <예배와 말씀> <설교> <김양재 목사의 큐티노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8시 45분 업데이트)

2. CTS 기독교TV/ "김양재 목사의 공동체 고백"

- 본방송: 토요일 오전 9시
- 재방송: 주일 오전 4시 30분
- 시청: 케이블 TV(채널: 지역 케이블 문의) 스키아리프 183번 IPTV(olleh 236번, Btv 301번, U+tv 269번)

3. CTS 라디오 JOY <말씀채널>

- 본방송: 목요일 오전 2시
- 재방송: 목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2시, 6시, 10시

4. C채널/ "김양재 목사의 공동체 고백"

- 본방송: 토요일 오후 5시
- 시청: IPTV(ollehTV 235번, Btv 304번, U+tv 272번)

5. GoodTV/우리들교회(김양재 목사)

- 본방송: 토요일 오전 8시 30분
- 시청: 케이블 TV(채널: 지역 케이블 문의) IPTV(ollehTV SkyLife 193번, ollehTV 234번, Btv 303번, U+tv 273번)

6. CBS TV "김양재 목사의 우리들 말씀"

- 본방송: 매주 (주일) 오전 7:00-7:50 (지역 케이블/ 위성 SkyLife 182번/ IPTV KT올레 238번/ LG U+ 181번/ SK Btv 300/ U+tv 270번)

전도 영혼 구원이 최고인 공동체

섬김 사랑과 헌신이 우리라는 섬김 공동체

예배 말씀으로 살아나는 기쁨의 예배공동체

교제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문화공동체

훈련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공동체

누림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건강한 공동체

●후원교회, 단체 및 선교사

BTC 강남교역 개혁주의생명신학회 경기남부경찰청경목역 국제연합신학연구원(중국신학교) 구알스토어 굿터비(기독교복음방송)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낙태반대운동연합 남북사랑교회
 농아선교회 나비다자매회 라이프호프 말아톤복지재단 미국기독교일보 믿음찬군인교회 보라매선교회 사랑마루 새빛교회 샘복지재단 생코리아 수레바퀴선교회 신명영문교회 아프리카미래재단 안나의집
 양주진리교회 여명교회 우즈베크영방병원 이주민민선센터 재단법인아가페(소망교도소) 코람데오닷컴 코스타 크로스뉴스 크리스찬연합신문 크리스천포커스 통일교문화원 하나로복지회 하늘꿈교회
 한국기독교문화예술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한국말발산교단 한국복음주의신약학회 한국컴퓨터 한국피스메이커 한국해외선교회 한배협력교류회 한아프간친선협회

권경숙(루마니아) 길호민(태국) 김간수(러시아) 김경모(일본) 김교배(미얀마) 김기쁨(미국) 김만선(인도네시아) 김민수(태국) 김사라(필리핀) 김상준(독일) 김성숙(오스트리아) 김영임(탄자니아)
 김정선(대만) 김정희(러시아) 김지훈(파키스탄) 김찬석(루마니아) 김홍근(헝가리) 난도(인도네시아) 두제(미국) 라잡이(미국) 마울로도드(미국) 박광우(코트디부아르) 박성욱(체코)
 박원주(헝가리) 박지훈(미국) 배점선(불가리아) 비추리(키르기스스탄) 서사라(불가리아) 세르가(미국) 송은섭(러시아) 신준범(필리핀) 신현호(미국) 심다니엘(미국) 안순교(남아공)
 양용태(그리스) 원성도(불가리아) 이광윤(필리핀) 이근욱(필리핀) 이근희(캄보디아) 이동윤(말라야) 이상준(중국) 이치훈(캄보디아) 임도매(미국) 전만규(우크라이나) 정바나베(중국)
 정성태(인도네시아) 정송남(러시아) 정홍기(루마니아) 조동제(미얀마) 조이천(중국) 조종현(네덜란드) 차병준(영국) 한재성(우크라이나) 홍방규(키르기스스탄) 홍윤주(우크라이나) 황성주 황익석(미국)

예배 및 모임 안내

woori.cc

구 분		대 상	시 간	판 교	회 문
주일예배	1 부	모든 성도	오전 6:50	판교채플 본당	본당(체육관)
	2 부	모든 성도	오전 8:50	판교채플 본당	본당(체육관)
	3 부	모든 성도	오전 11:30	판교채플 본당	본당(체육관)
	4 부	모든 성도(청년 중심)	오후 2:00	판교채플 본당	본당(체육관)
수요오전큐티예배		모든 성도	오전 10:00	판교채플 본당	
울림 웬스데이 워십		모든 성도	오후 7:30		본당(체육관)
새벽기도회 (월 ~ 주일)		모든 성도	오전 5:30	판교채플 연수홀(4층)	
주 일	통합부	4-7세	오전 9:00	유아1부실(2층)	덕일빌딩 6층
	영아부	0-3세, 부모님	오전 11:00	영아부실(2층)	원영빌딩 3층
	유아부	4-5세	오전 11:30	유아4세: 유아1부실(2층) 유아5세: 유아2부실(3층)	덕일빌딩 5층
	유치부	6-7세	오전 11:30	유치부실(5층)	덕일빌딩 6층
	유년부	1-2학년	1부: 오전 9:00/2부: 오전 11:30	유년부실(5층)	유년1,2부: 자모실
학 교	초등부	3-4학년	1부: 오전 9:00/2부: 오전 11:30	초등부실(6층)	초등1,2부: 간송실
	소년부	5-6학년	1부: 오전 9:00/2부: 오전 11:30	연수홀(4층)	소년1,2부: 원영빌딩 4층
	중등부	중등1부 / 중1-3학년	오전 9:00	판교채플 만나홀(3층)	안양빌딩 지하
		중등2부 / 중1-3학년	오전 11:30	판교채플 탄설홀(7층)	고등학교 식당
	고등부	고등부 / 고1-3학년	오전 9:00	판교채플 탄설홀(7층)	고등학교 식당
	사랑부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매)	오전 11:30	가볼실(6층)	안양빌딩 지하
새가족모임		모든 새가족 및 방문자	모든 예배 후	새가족실(3층)	교사식당
기초양육반		초신자 및 세례 대상자	주일 오후 2:00	7나눔실(5층)	본관 3층 미술창작실

▶우리들교회를 섬기는 이 / 담임목사 김양재

- 평원지기 / 광희숙 김은경 김경순 김균이 김소연 김수경 김순덕 김영미 김영순 김옥진 김은희 김현정 김형진 나화주 류화숙 마정희 박경옥 박성원 박재신 박지현 백수기 서경진 신영희 안윤주 오동월 윤재은 이경애 이병희 이서원 이효숙 이효주 임창욱 임현아 임현주 강해원 전지현 정명선 정희라 조미영 차연실 최송희 홍은옥 홍지원 황승영
- 남자초원지기 / 강태도 강필구 권덕주 권봉오 권영민 권오성 김광희 김낙홍 김동호 김민수 김상건 김성주 김성철 김세범 김시태 김신 김형중 김영환 김우승 김은태 김인중 김정욱 김종문 김주영 김태호 김한호 김호 남삼희 남태현 류종욱 박동진 박성원 박성원 박은주 박재석 박재수 박종혁 박홍채 박훈영 배한일 서병후 서천중 손진영 심경보 심주용 안광식 안용환 안효호 양재호 오경조 오재근 유병철 유상대 유재권 유부경 이규진 이기창 이윤배 이진호 이찬희 이학준 임종석 강행구 정민영 정상기 정상호 정영식 정의학 정인식 정희소 조근 조병용 조영욱 조은형 진교순 차승균 한은택 한인규 홍성우 황승연
- 여자초원지기 / 고미영 공숙경 광경숙 권혜경 김경희 김도애 김명신 김미령 김미현 김민정 김서우 김수진 김순주 김옥순 김윤정 김은영 김경미 김정현 김진경 김효진 나옥경 나윤숙 노경애 노귀연 류명기 박미숙 박영아 박영희 박종희 박진희 박태순 박혜상 박희경 백난희 백은주 백준숙 변연주 봉미정 서영화 서영희 서은형 손보영 손서영 손수진 손은영 신명진 신보문 심은하 양경남 엄필순 엄선영 오인자 위혜정 윤영희 윤덕애 윤철상 이경원 이정은 이말순 이명숙 이명자 이소현 이숙자 이순옥 이옥신 이완수 이원희 이은주 이정미B 이정미C 이혜신 임정순 장광자 장구진 전복삼 정명희 정미숙 정수립 조경희 조유기 조정자 조현숙 지수선 최광숙 최경미 최진숙 한경숙 한나리 한봉경 한은경 한인숙 허지영 홍정애 홍희경 홍희승
- 협동장로 / 최형식 • 명예장로 / 강형욱 구광광 김승찬 김재욱 오성균 오의희 유준근 윤경현 이윤희 이재선 조병국 최기홍 최상열 탁관철 한동실
- 명예권사 / 강경자 김선애 김진열 박명업 박옥자 배인순 손금정 유진화 이경우 이경숙 이지훈 이화숙 정만연 정모량 표길자 하주 홍미자
- 은퇴장로 / 김지일 이공현 • 은퇴권사 / 김신재 성난숙 성혜옥 염신혜 유정순 이연수 황혜정

교역자

- 목사 / 강성은 김기현 김동환 김석규 김성권 김성우 김성하 김세영 김승한 김영규 김우석 김용호 김은성 김의환 김경태 김진규 김태현 김태훈 김평화 김현우 김현중 류익현 박상수 박성근 박인용 박재순 박재현 박성훈 성승완 송동선 송민창 신승윤 유병준 유태상 윤진열 윤혜연 염승호 이상진 이상은F 이상훈B 이상훈F
- 이창업 이태근 이태준 이홍규 임대선 임동욱 장용석 정근용 정영길 정영희 정정환 정지훈 정찬형 정하람 최대규 최도현 최요한수 최태진
- 강도사 / 김연수배영광 • 전도사/김상호 김성희 김은혜 송혜은 신중문 왕덕택 최성남 • 교육전도사/ 권지윤 김택 유태주 • 사무실/이경자 강은영 노경민 문영란 서지혜 문현성
- 미디어/ 전선규 이두영 임덕수 황준규 김경철 윤지환 박진희 윤혜영 전성현 김주영 • 관 리/ 박훈영 임승조 황종영 정석열 정상연

"천국에서 만나자"가 최고의 유언

김승택



불교 집안에서 자란 저는 대학 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의지하던 할아버지의 폐암 말기 소식을 듣고, 절망감에 술에 취해 살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장례 기간 내내 목탁 소리와 염불 외우는 소리를 들으며, 죄책감에 죽고만 싶었습니다. 어느 날 서점에서 우연히 본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교회로 인도되었습니다. 내 죄악 때문에 죽음 받은 1/4이 바로 할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어 절망하고 있을 때, 아직 3/4을 남기신 하

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7년 후, 할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믿지 않는 아버지 몰래 할머니 귤가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달려간 그날, 옆 침상에 계시던 분의 두 딸이 선교사님이신데, 마지막 한 달 동안 매일 찾아와 성경을 읽어드리고 찬송을 불러드렸다고 했습니다. 제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역자님 초대로 처음 TT에 다녀왔습니다. '지원도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실까?' 생각하던 중 조부모님 나이대의 어르신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식구들을 가장 사랑하는 유언이**

라고 합니다. 오늘 모두 예수 믿고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최고의 유언을 남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간증하고 나니, 저를 죄책감의 감옥에서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신 것 같은 사건마저 구원의 약재료로 바꾸어 연약한 제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보니, 이제는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구원을 위해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맞서던 저를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해 주신 담임목사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와 우리 가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 시리즈
2026년 9월호



큐티인
스마트 스토어
바로 가기

큐티인, 청년 큐티인, 청소년 큐티인, 어린이 큐티인, 셋별 큐티인, 새싹 큐티인, QTin, QTin Young, QTin Teens, QTin Kids, QTin Stars, QTin Sprouts 9월 호가 나왔습니다. 많이 구입하셔서 전도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송 안내: 택배로 발송되며 택배비는 구매자 부담입니다) 문의: 031-707-8781



큐티인 시리즈 6종

'뚝뚝' 목장

(판교지역 부부목장/목자 김태운)



김태운 목자(앞) 부부

저희 목장 닥네임은 말과 행동이 뻗뻗하고 어색했던 뚝뚝이 부부들이 늘 붙어 다니는 시계바늘처럼 뚝 뚝 맞고 딱 맞는 뚝뚝이 부부가 되자는 뜻에서 '뚝뚝 뚝뚝'이라고 지었습니다.

목자인 저(김태운)와 아내는 둘 다 불신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고 불신결혼했습니다. 저는 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제가 되었고 건강하게 화를 표현할 줄 몰라 아내와 자녀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찾아온 불치의 안면신경 근육 이상증과 자녀의 우울, 불안, 강박 증세가 저에게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되어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예배와 양육을 통해 저의 죄를 직면하고 나서 가족에게 사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아내와 자녀의 건강이 회

복되어 온 가족이 공동체에 잘 붙어가고 있습니다.

송대규 부목자님은 아내의 간절한 권유와 기도로 예배와 목장의 자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중독을 끊어낼 수 없음을 깨달아 말씀을 들으며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목장 예배를 통해 현재의 경제적인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으로 해석하고, 공동체의 권면을 따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기를 기도합니다.

김형범 부목자님 부부는 우리들과 회 청년부 출신이고 부목자님은 과거에 교제하던 여성에게서 받은 거절감과 오랜 기간 취업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공황장애를 겪었으나 말씀으로 해석 받으며 신결혼했습니다. 현

재 어린 세 자녀 양육이 고난이고, 아내 집사님의 육아 우울증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하지만, 큐티하고 목장에서 권면 받으며 위기의 때를 지혜롭게 지나고 있습니다.

김성우 집사님과 김형수 집사님은 새신자 가정으로 올해 우리 목장에 배정되었으나, 현재 예배에는 참석하고 목장에는 아직 못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집사님이 목장에 나올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때로는 맞지 않아 뚝뚝거리지만, 말씀으로 뚝 뚝 맞고 딱 맞는 부부가 되고 싶으시다면, 저희 목장으로 오셔서 나누고 위로받고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뚝뚝 뚝뚝 목장 식구들

환란 가운데 남겨주신 기쁨

유혁진



유혁진 집사(오른쪽)와 큰아들

바쁜 부모님 사이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혼자 판단하며 살다가 청년 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계원이 수억 원의 갯돈을 들고 해외로 도주해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자, 학업과 돈벌이를 병행했습니다. 불신이던 아내를 만나 다시 여러 교회를 기웃거리다가 부모님이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 주례로 결혼했고, 세 아이를 낳은 후 사업도 잘 되어 집까지 장만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어려워져 아끼던 집까지 팔게 되자 우울해하던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제게 달려들었고, 혈기와 생색으로 휘두른 저의 주먹질에 아내는 이석증으로 입원까지 했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가깝게 지내던 이들조차 점차로 외면할 때, 우리들교회에 다니던 큰누나의 인도로 혼자 목장에 참

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춘기로 반항하는 아들에게 손을 대고, 딸의 절도사건에 훈육하다 손찌검해 고막이 찢어지니 결국 아내는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작년 1차 소송 패소 2일 후에 목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워해 주시던 담당 장로님이 담임목사님께 메일을 보냈는데 ‘항소에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더라도 아빠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라’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이후 3차까지 패소하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기쁨이 많습니다. 아직 재산분할이 되지 않아 다섯 식구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목자로 처

방을 드리지만 제 죄가 더 보이니 ‘집사님들이 나보다 옳도다’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큰아들이 함께 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지난 TT 때는 평소 대화가 없던 딸이 엄마 생일에 쓰겠다며 용돈을 요청했는데 돈을 보내주니 ‘고마워’라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한 방을 쓰는 중1 막내아들과는 잠자기 전 큐티와 기도도 함께 합니다.

거룩이 없는 행복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던 제게 거룩을 우선되게 해주시고, 너무나도 자격이 없는 저에게 남겨진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베어낼 수 없는 꿈은 마음을 말씀으로 할례받으며, 공동체 안에서 언약의 길을 따라가는 온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혁진 집사(왼쪽)와 큰아들



2026년 8월 30일 세례자 명단

김서현 김호정C 류충희 서영준C 성슬기 유광현 이정우N 정윤정E 정치우 홍가혜
강성빈 국서경 김강욱 김연진 김예진 김재형C 김효주A 박운호 박지윤E 박지은 하관욱

十 세례 간증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이 깨달아져

김효주A

어릴 때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고 중학생 때 왕따를 당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신 아버지에 대해 원망하며, 열심히 살고자 끊임없이 나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계획되지 않은 아이였다고 하시는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제 존재 자체에 대해 부정하며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전도로 우리들교회에 왔습니다. 공동체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함께하셨음을 알게 되었고, 기초 양육을 받으며 나에 대해 높은 기준을 두고 살아왔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상처와 실패만 보였던 인생이었는데 지금까지 저의 신앙을 이**

끌어오셨고,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이 깨달아집니다.

이제 하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과 경험들이 언젠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섬기는 데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큐티가 하루를 시작하는 기준이 되게 하신 주님

하관욱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증오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삶에 깊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힘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려 교회 온 것이 아니라 결혼 때문에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

다. 건강 검진에서 간에 3cm가 넘는 종양이 발견되었고, 그날 밤 극심한 통증 속에서 처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 진심 어린 기도였습니다. 큐티는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 사람들을 미워하던 제 모습을 보게 하였고, 모든 것을 내가 이루려 했던 교만도 보게 하셨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계속 제 힘만 믿으며 살았을 텐데, 교회를 미워하던 제가 예배를 기다리게 되었고,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번 세례를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첫걸음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수렁에 빠진 나를 건지심

홍가혜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엄마가 집을 나가면서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7살 때 작은 아버지가 집에 불을 질러 죽을 뻔 하였고 17살 때는 고모가 눈앞에서 음독자살 하였습니다. 큰 충격을 받아 학업을 그만두고 일본으로 건너가 설거지부터 시작하여 매니저가 되어 유명세를 타기도 하였지만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의류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수사로 참여했다가 잠시 한 뉴스 인터뷰로 인해 오해를 받아 소송까지 갔고 이혼으로 싱글맘이 되어 악착같이 돈을 벌었지만 남자 친구에게 사기당하고 폭력과 몰카까지 당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모태신앙임에도 모든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조울증으로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인도로 **예배를 드리던 중 이제 그만 아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져 수렁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씀과 양육을 통해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합니다. **고난이라는 설계를 통해 저의 구원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 김온유(김태석A, 김태은K)

믿음이 없던 저는 남편을 통해 교회에 나오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임신 기간에는 말씀으로 위로받았습니다. 골로새서 3:12 “궁홀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는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며 ‘온유’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 박건웅(박재홍C, 이은총B)

여호수아 1:9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처럼, 몸과 마음이 강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 없이 선을 행하는 큰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며 ‘세울 건(建), 수컷 웅(雄)’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 안주영(안지환A, 백지혜C)

태어난 날 큐티말씀은 사도행전 14:8-18로, 루스드라의 앓은뱅이를 주목한 바울이 그를 일으켜 걷게 하였고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본문이었습니다. 자연분만을 위해 임신 기간에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나 결국 응급 제왕절개를 하게 되는 사건을 겪으며,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노력을 앞세웠던 교만을 회개하고 전적 무능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주영이와 부모인 우리가 성령의 주목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주목할 주(注), 들을 영(聆)’을 써서 주영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 양채우(양초명, 이서연B)

임신을 확인한 날 말씀이 사사기 13장에 삼손이 태어난 내용으로, 삼손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쓰임 받기를 바라며 ‘쏘니’로 태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날에는 마가복음 15장,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돌아가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채우도 구원이 일 순위가 되고, 삼손처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명을 다하는 택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풍채/겉채(采), 도울 우(祐)’ 채우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 임리하(임진수, 박사언)

육아를 고난으로 여기던 제게 갑작스레 둘째가 찾아오자, 큐티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8:39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기쁘게 길을 갔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저도 육아의 길을 기쁘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둘째의 이름에도 ‘진리를 기뻐하는 아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진리의 ‘다스릴 리(理)’와 기뻐하며 축하한다는 의미의 ‘하례할 하(賀)’를 사용하여 리하라고 지었습니다. 리하를 낳은 후 여전히 육아는 고되지만, 신기하게도 예전에는 잘 몰랐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 천성은(천세창, 이은혜)

셋째 성은이를 임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사업에 위기가 찾아왔고, 추운 겨울 이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은 저에게 오히려 목장공동체에 더 붙어가게 하시고, 남편이 온몸으로 고난을 통과하며 양육과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셨습니다. 태어난 날 주신 잠언 19:15-29 말씀을 통해, 생명에 이르는 경외는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빠와 언니처럼 말씀의 공동체에 속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아이로 자라길 소망하며, ‘그리스도 성(聖), 은혜 은(恩)’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아직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맡겨주신 육적 후사를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 하시연(하준환, 정하경)

하나님은 내 뜻대로 최고의 가정을 이루고자 했던 교만한 우리 부부에게 자녀를 기다리는 3년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 번의 유산과 네 번의 시험관 시술을, 창세기 17: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말씀과 공동체의 기도로 넉넉히 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내 이루시고 우리에게 보이셨음을 고백하며, ‘보일 시(示), 말씀 언(言)’을 써서 시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시연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잘 양육하겠습니다.



♥ 하유리(하준호, 김이슬B)

누가복음 19:1-10 “인자가 온 목적”이라는 큐티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둘째 아이를 보내주셨습니다. 이혼의 위기를 겪고 가정이 회복된 후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험관을 통해 둘째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며 아이를 세상의 상급처럼 여기고 있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두 아이를 주신 것이 우리 가정이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맑고 투명한 유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삶을 살기를 그리고 유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비치기를 소망하며 한글 이름 ‘유리’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두 아이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대구° THINK 목회세미나

지난 8월 24일(월)부터 26일(수)까지 3일 동안 대구성명교회에서 첫 '대구 THINK 목회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경상도와 그 외 지역의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 약 350여 명이 함께해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큐티묵회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성명교회 배준현 담임목사님



강의하시는 담임목사님



강의시간

세미나는 김양재 담임목사님의 간증과 구속사적 말씀묵상 강의를 중심으로, 목장 시연, 패널토의, 간증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으로 삶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나누며 구속사적 큐티묵회의 실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세미나 기간 동안 이어진 저녁 말씀집회에는 약 700명이 함께해 뜨거운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름 동안 진행된 '경상도 THINK TRIP'으로 지역 교회를 찾아가 복음과 말씀을 전하며 뿌렸던 씨앗이 '대구 THINK 목회세미나'라는 자리에서 실제적인 참여와 열매로 나타나 더 의미를 더했습니다.



목장 시연 들으시는 담임목사님



찬양하는 참석자들

**“이 땅에서는 십자가와 영광이 한 단어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고난입니다.”**

목사님은 우리의 인생을 세속사의 관점이 아닌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인생의 흥년을 지나면서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님은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흥년과 같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환경이 아닌 나 자신을 보게 하시며 회개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결국 내 뜻대로 잘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붙드는 인생이 가장 유익한 인생임을 전했습니다.

세미나의 모든 일정을 마친 수요일에는 수료식이 진행되었으며, 대표 수료자로는 여수성광교회 최종배 담임목사가 참석자들을 대표해 수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THINK 목회세미나에서 만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창영락교회 김대현 담임목사

목회자로서 큐티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묵세를 통해 구속사적인 말씀이 들리고, 삶이 해석되는 사건이 생기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모두에게 들려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가족과 성도들과 함께 큐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큐티는 목회의 본질이고,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성일교회 최재호 담임목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큐티묵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장로교 목회자로서 큐티묵회를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성장 과정과 환경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큐티묵회를 목회 현장과 성도들의 생활 속에 잘 녹여 내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기도제목이자 비전입니다.

서문교회 소문수 담임목사

제자훈련이 목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본질을 향한 갈증이 채워지며 큰 은혜와 함께 도전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으로 자유를 얻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사역을 이어오면서 그 은혜가 점점 형식화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시 말씀의 자유를 보게 되었고, 제 마음이 다시 뛰고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구 THINK 목회세미나를 통해 말씀이 들리고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어 한 사람, 한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경상도 THINK TRIP'에서 기쁨으로 섬겨 주신 성도님들의 수고와 섬김 덕분에 많은 지역 교회 목회자들이 이번 세미나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그 섬김이 지역 교회를 살리는 귀한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CMS 온라인 선교헌금 작정은
QR코드를 통해 가능합니다.



러시아의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기를 기도하며

지난 30년 동안 러시아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드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선교 소식을 전합니다.

청소년 사역 소식

지난 봄방학을 이용하여 우수리스크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전집회를 개최하였고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3박 4일 동안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개최했는데, 19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청소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러시아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뒷마당 공사 시작 소식

작년부터 힘써 섬겨주신 주의 종들의 섬김으로 기초공사를 마쳤습니다. 한국에서 모금된 선교비는 밀린 임금 빚을 갚는 데 귀하게 사용되었고, 이제 얼어붙은 땅이 해동되어 뒷마당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 경주의 미르교회 집사님 꿈을 통해 미르교회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의 건강 기도 요령

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두 차례 감염을 겪으며 폐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러시아 선교지에서 자라고 현지인 지도자와 결혼하여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둘째 딸이 추운 환경 속에 지내는 동안 손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사위는 올해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으며 모스크바 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러시아 사역뿐 아니라 북한 동포를 향한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인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셨고 그 열매로 러시아의 젊은 지도자 네 명이 한국의 신학대학원에서 훈련을 받고 돌아와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드리며 늘 기도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집회 사진



청소년 연합 수련회 참가자

발신자: 러시아에서 김건수, 오미영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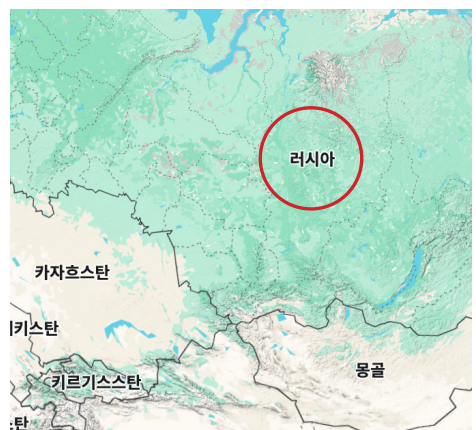
수신자: 우리들교회

정식 명칭: 러시아 연방 (Russian Federation)

1. 위치: 동유럽과 북아시아에 걸쳐있는 연방공화국
2. 수도: 모스크바
3. 언어: 러시아어
4. 종교: 러시아 정교회 42.5%, 기독교 3.1%, 이슬람교 6.5%, 전통종교 1.2%, 불교 0.5% 무교 4%
5. 인구수: 1억 4,399만 7,393명 (세계 9위)

기도제목

1. 저의 약해진 폐 건강이 회복되고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2. 교회 바닥공사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 주시고, 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3. 한국 신대원을 유학한 초이 블라디슬라브 전도사가 박사 공부를 잘 마치고, 올해 꼭 목사 안수를 받아 러시아교회와 북한사역을 잘 이끌 수 있도록
4. 둘째딸의 건강이 회복되며 사위의 목사 안수와 신학 공부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5. 러시아와 북한사역의 문이 더욱 넓게 열리도록



우리들교회 선교국
flow@woori.cc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별 통해 사람의 사랑을 이상 삼았음을 깨달아

지혜원 (EZER 공동체)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불안하고 우울한 학창 시절을 보내며, 바쁜 엄마와 부재 중인 아빠, 엇나갔던 오빠를 보며 느낀 외로움과 불안을 사람을 통해 채우려 했고 특히 연애에 의지했습니다. 누군가 사랑해 주고 곁에 있어 주면 괜찮아 졌지만 관계가 흔들리면 제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우리들교회에 와서 불신교제는 끊었지만 제 가치관까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의 교제라면 신교제라고 생각했지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늘 불안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이해하려 했고, 제 안에 불편함이 있어도 관계를 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랑의 순서가 뒤집혀 사람을 통해 외로움과 불안을 잠재우

고 있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배신을 경험하자 혈기가 터졌고, 상대방과 그 부모님에게 연락하며 제가 피해자라고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폭로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사람을 이상 삼아 사랑과 안정과 인정을 얻으려 했던 제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목장의 권면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제 연약함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공동체, 취학부 큐페 스텝으로 섬기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관계의 무너짐을 정죄가 아닌 회복의 사건으로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얻으려 했던 사랑과 안정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100% 죄인인 저를 먼저 사랑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게 하셨습니다. 허락하신 만남과 이별이 제 안의 이상을 드러내고 뒤틀린

사랑의 질서를 바로 세우시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랑과 안정을 얻기보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제가 먼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나온 고난과 아픔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살리는 약재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놀이터 '쌍쌍그라운드' 유튜브 채널이 오픈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는 것을 넘어

말씀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꿈꾸며 준비했습니다.

놀이처럼 시작하지만, 결국 삶에 남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쌍쌍그라운드
바로 가기



그 앞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 47:12

뜨거운 여름, 은혜로 떠난 THINK TRIP

뜨거웠던 여름 두 달에 걸쳐 진행된 청년국 멍크트립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올해는 약 500명의 청년들이 경상, 제주도 그리고 군부대로 TT를 다녀왔는데요. 각자의 앞사귀를 들고 눈물과 땀으로, 날 살리신 구속의 기억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청년국에서는 여름 TT를 돌아보고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지난 8월 15일 판교채플에서 여름 사역을 정리하고 돌아보는 TT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예배로 돌아본 TT의 은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층 식당에서 준비된 식사를 나누며 TT를 다녀온 후 받은 은혜와 TT 이후 각자의 삶을 나눴습니다. 1부는 예배로, 2부는 각 팀의 사역 보고로 진행되었고, 마지막 3부에는 각 팀별로 더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부 순서에서는 찬양팀의 찬양으로, 여호수아의 세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 간 것처럼 청년들도 TT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기적의 세대로서 옳은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며 찬양했습니다. 이어 정기웅 형제와 김예슬 자매가 TT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간증으로 나눴습니다. 이후 최대규 목사님께서 당일 큐티인 본문인 신명기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바탕으로 “올무가 되리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해 주셨습니다. TT 이후 세상 가운데 흘러가지 않고 받은 은혜를 품은 채 약재료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19개 팀이 전한 사역의 열매

2부 순서에서는 경상, 제주 그리고 군부대 팀을 포함한 총 19개 팀이 영상과 PPT 발표를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섬겼는지, 또 자신의 연약한 앞사귀를 통해 어떻게 약재료가 쓰임받았는지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9개 팀의 발표가 모두 끝난 후에는 각 팀에서 은혜 받았던 사진, 단합이 잘 드러난 사진, 재미있었던 사진 등을 대상으로 콘테스트를 진행하며 사진을 통해서도 TT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이후 축도로 2부 순서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어지는 약재료의 삶

3부 순서에 앞서 준비된 커피와 음료를 함께 나누는 뒤, 각 팀별로 더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TT 이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겪은 고난을 나누고, 앞으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서로 나누었습니다. 2026년도 여전한 방식으로 진행된 여름 멍크트립은 큰 은혜이자 도전이었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이번 멍크트립을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각자의 연약한 앞사귀일지라도 섬긴 지역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약재료가 쓰임받은 것에 감사하며, 나보다 앞서 가셨고 또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청년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월요 큐티 모임

Season3

09/07 신명기 17:14-20
09/14 신명기 21: 1- 9
09/21 신명기 24:1-9
09/28 신명기 27:11-26
10/12 신명기 31:19-29

9월7일~10월12일 오전10시 | 우리들교회 판교채플 본당
10월 5일은 대체공휴일로 쉽니다.

23rd

THINK

목회세미나

2026

10.19-10.22

월 목

성도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다



대상 _ 담임목사와 동반하는
사모, 부교역자, 평신도 지도자

담임목회자 부부가 같이 오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모, 부교역자, 평신도 지도자는 개별적으로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단, 이전 THINK 목회세미나 참석 교회 사모, 부교역자는 개별 참석 가능



접수 _ 26.9.1화 - 30수

*** 회비** 15만 원 (비속박 프로그램)
양육교재, 워크북, 세대별 큐티지 6종 세트 포함



카카오톡 채널 'THINK 목회세미나'



홈페이지 qtm.or.kr
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QTM

목회자
THINK 양육

개강 및 종강 2026.11.2 - 11.30
매주 월요일, 5주간/ 오전 10시-오후 4시 판교채플



031.705.5360 큐티엠 www.qtm.or.kr



대구 성명교회 THINK 목회세미나 모습



대구 THINK 목회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목사님



판교채플 찬양 시간



판교채플 설교 시간

| 우리들의 THINK

나의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리는
초라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마주합니다

이 부족한 내 곁에 주님은 머물고 싶다 하십니다
사랑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으려 했지만
사건과 고난을 통해 내 의가 깨어지고 나서야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기뻐하시는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 베어낼 수 없는 굳은 마음을 고백합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사랑으로 곁에 있는 이를 품으며
언약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마음을 다한 사랑〉
260823 주일 설교를 듣고